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4년 2월 25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마태복음 4장 5-7절

설교제목 :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광야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되심을 입증하십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으로 유혹합니다. 오늘은 사탄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습니다.(5절)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느11:1) 그리고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시험기사에서는 거룩한 성을 정확하게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눅4:9) 그러나 마태의 독자는 유대인이었기에 거룩한 성을 굳이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성전에 예수를 데리고 가서 성전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성전 꼭대기가 어느 곳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6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매우 교활한 시험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의 특징은 시편 91:11-12의 말씀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한마디로 말씀의 성취로 메시아되심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요구는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편 91:1-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노릇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다. 말씀의 성취로 메시아되심을 증명하라는 사탄의 요구는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씀의 성취로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뛰어내리라’는 요구인데, 인용된 시편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뛰어내리라’는 말을 덧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요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씀이 성취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이것은 마치 시크릿이란 책이 주장하는 긍정적 사고방식과 같은 요구입니다. 시크릿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주도적으로 원하는 대로 우주적 기운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요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대로 말씀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내가 원하는대로 하나님도 움직여지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요구는 시크릿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대로 움직여지는 우주의 기운이 될 뿐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원하는대로 말씀을 수단화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원하는대로 말씀을 수단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7절) 결코 자신이 원하는대로 말씀을 수단화하면 안됩니다. 말씀은 목적이 되고, 내가 말씀을 따라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원하는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내가 움직여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탄의 유혹은 당시 유대인이 원하는 메시아에 대한 바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유대인의 메시아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수많은 자들을 먹일 수 있는 민중의 메시아였습니다. 성전 지붕 꼭대기에 우뚝 서 있는 토라의 메시아입니다. 더 나아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결코 해를 입지 않는 능력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물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의 메시아는 능

력의 메시아입니다. 사탄은 지금 예수님께 능력의 메시아되심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네가 만일 메시아라면 권능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되심을 무엇으로 입증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는 것으로 메시아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사탄의 요구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의 능력과 기적으로 증명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과 억압 속에서 죽게 만든 저 이복의 정권을 한번만 손봐주시면 될텐데라는 생각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제압해주길 원합니다. 우리의 의심이나 불신앙을 확실하게 제거해 주시기 위해 그분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사실 세상을 제압하기를 참고 계시는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이처럼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능력을 기대합니다. 질병을 즉각 치유해 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지않는 자들을 향해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이 기대했던 메시아입니다. 능력의 메시아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예수님께 자신의 능력으로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라고 한 것입니다. 네가 만일 메시아라면 권능과 이적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의 요구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능으로 메시아되심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권능과 기적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시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할 것 같습니까? 성경의 답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복종을 강요할 수 있지만, 자발적인 사랑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능력의 메시아가 아니라,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메시아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됨을 능력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십자가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거대한 교회, 많은 성도의 수도 교회다움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교회다움을 증명합니다. 진정한 기적과 권능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에 놓여있는 우리를 자신의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십자가의 내어줌과 사랑입니다. 십자가와 사랑으로 단호하게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메시아됨을 증명하라는 사탄의 유혹을 거부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의 메시아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날 왜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역원들과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